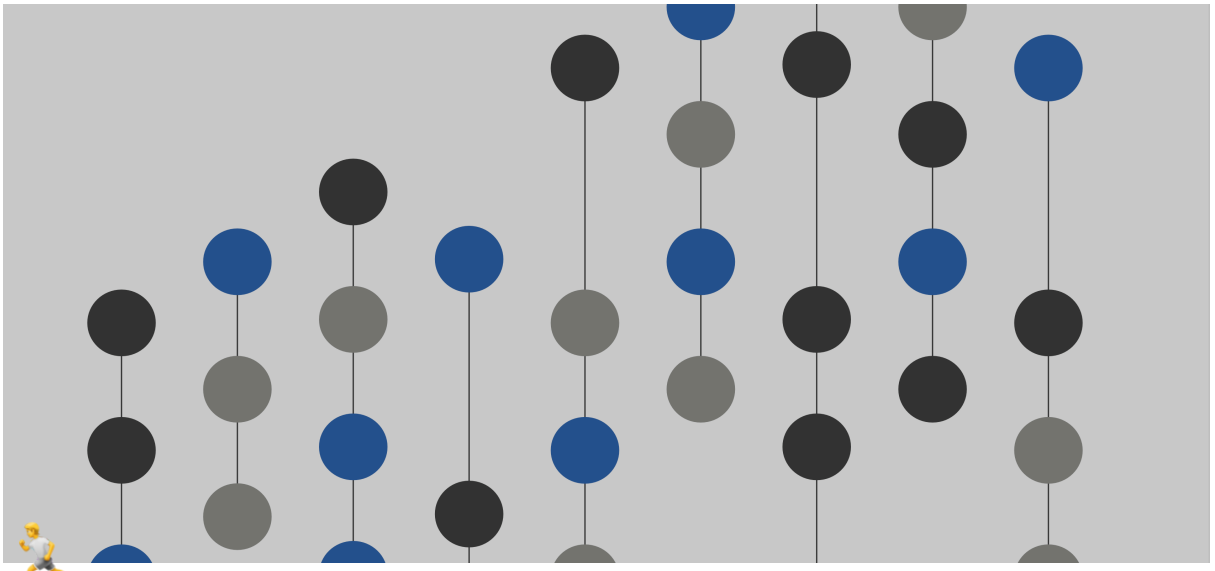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 인도자 가이드

0. 함께 걷는 여정으로의 초대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서신 인도자님을 축복합니다.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서 있는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인도자로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적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지 못한데, 누구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본 과정에서 인도자는 '먼저 고민하고 함께 걷는 동료'입니다.

이 교재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를 권합니다. 인도자님의 역할은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8주간의 여정을 통해, 인도자님과 공동체가 '보냄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 교재의 특성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는 '선교'가 특별한 사역이 아닌, 모든 성도가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자 정체성**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재는 인도자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보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선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귀납적 훈련 교재입니다.

- **16개과 8주 과정 :** 16개의 과를 한 주에 2개씩, 최소 8주 동안 나누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가 약간 빠듯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분량입니다. 각 모임의 상황에 따라 좀 더 길게 진행하셔도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좀 더 머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성경 중심의 귀납적 학습 :** 인도자가 이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성경 본문을 읽고 관찰하며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연속성과 누적 학습 :** 각 과는 독립적이지 않고, 이전 내용을 복습하며 개념을 쌓아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1과의 핵심 구절(요 20:21)이 교재 전체를 관통합니다.
- **정체성으로부터 실천으로 :** 선교적 활동(Doing)을 먼저 다루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정체성(Being)을 먼저 확립한 뒤 삶의 방식(윤리)으로 나아갑니다.
- **일상성 강조 :** 거창한 프로젝트보다는 가정, 직장, 이웃 관계 등 일상에서의 삶을 선교의 현장으로 재정의합니다.

*1권의 특성상 개념 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2권 <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나눕니다.

---

2. 교재 특성에 따른 인도 방법

이 교재는 참여자가 미리 공부하고 와서 모임에서는 나눔에 집중하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자는 기존의 성경 공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강의하기 보다, 확인하세요(check) :** 교재에 이미 본문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자의 역할은 핵심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답형 퀴즈보다는, 그 개념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보게 하거나 본문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는 확인 질문을 활용해 보세요.
- **정답을 말하기보다, 틈을 메워주세요(fill) :** 참여자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성경 본문을 오해하거나 교재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그때 개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면 됩니다.
- **'지식 습득'은 집에서, '삶의 적용'은 모임에서(share) :** 모임 시간의 70% 이상은 각자의 깨달음과 적용을 나누는 시간에 할애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모임 때 "미리 읽고 문제에 답하여 오는 것"이 이 모임의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습을 못 해온 참여자가 너무 많다면, 강의로 대체하기보다 즉석에서라도 교재를 읽고 풀 시간을 갖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태도 :** 참여자가 답을 이야기할 때 "정답입니다/아닙니다"로 판정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네요", "신선한 관점이네요"와 같이 반응하여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엉뚱한 대답이나 솔직한 실패의 경험도 비난받지 않고 수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진짜 '선교적 삶'의 고민이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이 모임은 인도자의 강의가 아닌, 참여자의 예습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임 전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사전 공지 및 점검

☐ 예습 독려: 모임 2~3일 전, 단체방 등을 통해 "교재를 미리 읽고 답을 해오세요"라고 명확히 공지했나요?

☑ 내용 숙지 및 준비

☐ 해설 숙지: 참여자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본문을 오해할 때, 가이드라인(교재의 해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나요?

☐ '틈' 예상하기: 이번 과에서 참여자들이 특히 어려워하거나 오해할 만한 신학적 용어나 개념(예: 율법에 대해 죽음, 새 창조 등)을 미리 파악했나요?

☐ 연결 고리 준비: 교재의 지식이 참여자들의 실제 삶(가정, 직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질문' 하나를 준비했나요?

☑ 마인드셋 (Mind-set)

☐ 강의 욕구 내려놓기: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듣겠다"는 마음을 가졌나요?

☐ 경청과 반응: 정답 판정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주는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

3. 과별 가이드

이 가이드는 인도자가 **참여자의 학습을 점검하고 삶으로 연결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돕도록 간략히 구성되었습니다. 교재 본문 해설로 내용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지점들은 하단에 소개된 참고도서들을 통해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Check):** 참여자가 예습을 통해 핵심 주제와 성경 본문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
- **보충 내용(Fill):** 참여자가 혼자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개념을 바로잡아 주는 핵심 정리
- **나눔 질문(Share):** 학습한 내용을 참여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가정, 일터, 관계)으로 가져와, 실제적인 변화와 적용을 이끌어내는 심화 질문

1단원: 선교적 공동체의 기초

▼ 1과: 선교적 공동체

확인 포인트

- '선교적'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보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공동체'란 어디로, 무엇을 위해 보냄 받은 공동체입니까?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충 내용

-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활동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뿌리는 '보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힘은 비장한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눔 질문

- "나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당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곳에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보냄 받은 자리에서 두려움이 기쁨과 사명으로 바뀐 경험이 있습니까?

▼ 2과: 성령을 보내심

확인 포인트

-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보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선교 이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보충 내용

- 성령님을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나 내면의 위로자로만 국한하지 않도록 안내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돕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습니다.

나눔 질문

- 그동안 성령님을 '나의 신앙을 돕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면, '선교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관점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담대함, 지혜, 평안 등)이 가장 필요한 관계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 3과: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확인 포인트

-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분은 누구였으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편견을 깨뜨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우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보충 내용

- 우리는 우리가 선교의 주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주는 시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내가 먼저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나눔 질문

- 내 생각에는 옳다고 여겨 추진했으나 막혔던 일, 혹은 하기 싫었으나 억지로 순종했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려다가 내 안의 편견을 발견하거나, 도리어 내가 더 큰 은혜를 입고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4과: 선교와 교회의 변화

확인 포인트

-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한 행동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나바를 파송한 것과 베드로의 외식 사건은 교회의 변화에 대해 각각 어떤 측면을 보여줍니까?

보충 내용

-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었는데, 베드로의 행동은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기도 하지만(바나바 파송), 익숙한 관습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베드로의 외식). 끊임없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나눔 질문

- 베드로처럼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 혹은 오랫동안 굳어진 관습 때문에 믿는 바와 다르게 행동했던(외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우리 공동체의 모습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낄만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문화는 없을까요?

2단원: 복음의 재발견

▼ 5과: 복음과 자유

확인 포인트

-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 교재에서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까?

보충 내용

- 복음에 무엇인가(할례, 율법, 특정 문화)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나눔 질문

-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그것으로 남을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까?
-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자유함을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 6과: 복음과 가치

확인 포인트

-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근거로 할 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 바울이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충 내용

-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세상의 가치관, 성공 방식, 종교적 업적)이 나를 지배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자랑거리나 든든한 배경이었으나, 지금은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내려놓게 된 것이 있습니까?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실제 나의 돈 사용, 시간 관리,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7과: 복음과 새 창조

확인 포인트

- 교재는 '새 창조(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 때문입니까?

보충 내용

- '새 창조'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 삶의 동력이 '두려움이나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곧 선교적 삶입니다.

나눔 질문

-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겪은 변화 중 "아, 내가 정말 예전과 다른 존재(새로운 피조물)가 되었구나"라고 느꼈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 당신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8과: 복음과 화해

확인 포인트

-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목(화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어떤 관계의 회복을 포함합니까?
-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무엇이며,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보충 내용

- 복음은 수직적 화해(하나님과 나)가 수평적 화해(이웃과 나)로 흘러가게 합니다. 화평이 없는 곳,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와 화해가 공동체 안에 실재할 때, 그것 자체가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가 됩니다.

나눔 질문

- 복음이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화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금 내 주변에 관계가 깨졌거나 서먹한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먼저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단원: 세상 속의 선교적 삶

▼ 9과: 선행과 선포

확인 포인트

-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까?

보충 내용

-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이자 강력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 우리의 선행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덕(성품)을 세상에 반사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나의 행실이 복음을 가렸던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직장이나 동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구별된 '선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 10과: 일상과 선교

확인 포인트

- 베드로전서에서 사환(직장인)과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핵심 태도는 무엇이며,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누구를 의식함입니까?
- 오늘날의 상황이 당시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정, 일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교재는 강조합니까?

보충 내용

-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비굴한 굴종이 아닙니다. 부당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Coram Deo)'으로 자리를 지키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적 권위입니다.
-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 현장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 질문

-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나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내거나 태도를 바꾸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나의 일터나 가정을 단순히 생계나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선교지'로 인식한다면, 내일 하루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11과: 소망의 이유

확인 포인트

-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인 '산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충 내용

-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 중에도 평안한 모습이 그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새 창조)'에 있습니다. 이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이기게 합니다.

나눔 질문

- 최근에 누군가에게서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혹은 "왜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삽니까?"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세상의 소망(돈, 성공)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 소망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12과: 소망의 보증

확인 포인트

-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볼 때, 신자가 굳게 붙들어야 할 미래의 약속은 무엇이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왜 헛된 것입니까?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보충 내용

-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믿음은 오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디게 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보증금'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증해 줍니다.

나눔 질문

- 부활과 하나님 나라 상속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의 선택과 태도를 어떻게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소망이 흐릿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시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는지 경험을 나눠봅시다.

4단원: 보냄 받은 자의 태도

▼ 13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1)

확인 포인트

-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선교적 삶에 어떤 태도를 요구합니까?
- 교재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나갈 때 본보기로 삼아야 할 모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보충 내용

- 하나님의 선교는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우리도 이 마음 없이는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긍휼을 입은 죄인으로서 세상에 나갑니다. 이 겸손함이 선교적 태도의 기초입니다.

나눔 질문

-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섬기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했던 '기다림'이나 '마음고생'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14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2)

확인 포인트

-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보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함을 보여줍니까?
-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까?

보충 내용

-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지배하려 하지만, 선교적 삶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기 비움'은 선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 우리는 '정복자'로 보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서 감동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나눔 질문

-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내가 '대접받으려 했던' 주인 행세를 한 적은 없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 서로 발을 씻어주는(서로 종 노릇 하는) 공동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 15과: 주인으로 살아가기

확인 포인트

-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 만난 배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영적 주도권을 가졌습니까?
-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주인(Host)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보충 내용

- 세상적인 지위나 돈이 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을 가진 자가 그 상황을 이끄는 리더이자 주인입니다.
- 선교적 삶은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갇힌 상태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남을 먹이고 살리는 영적 권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 상황은 어렵고 내 처지는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거나 위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여건이 되면 섬기겠다"고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떡(위로, 기도,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16과: 손님으로 살아가기

확인 포인트

- 바울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준 '손님'으로서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처신했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충 내용

- 때로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타인의 환대를 기꺼이 받는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굴함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며 다가가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문화적 취향이나 고집을 꺾고 '유연하게' 맞춰주는 것이 선교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릇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환대를 받는 것이 어색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까? '손님'이 되어 상대방을 높여줄 때 관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은 이웃과 어울리기 위해 내가 고수하던 방식이나 문화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주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4. 참고도서

1단원

움직이는 포도나무

서로가 보완하면서도 대립하는듯한 신학적, 영적 영역의 역학을 담아 요한의 선교적 영성에 대해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15810100



2단원

바울과 은혜의 능력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바울과 선물』을 저자가 간명하게 정리/요약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여 확장시킨 '은혜 신학'의 결정판이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1727864



3단원

희망의 이웃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 동네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올 기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책. 공동의 선을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3389759



4단원

환대와 구원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 책이다. 타자를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의 진정성은 타자에 대한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2923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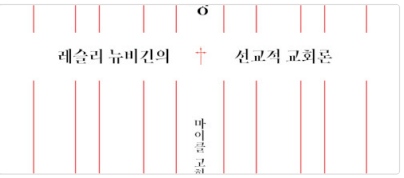


전반

교회의 소명

레슬리 뉴비긴의 삶과 사역이 빚어낸 선교적 교회론을 마이클 고힌이 정리하고 발전시킨 책. 평생에 걸쳐 레슬리 뉴비긴을 연구하며 따른 저자는 뉴비긴의 저작뿐 아니라 전에는 접근할 수 없던 강연 및 미발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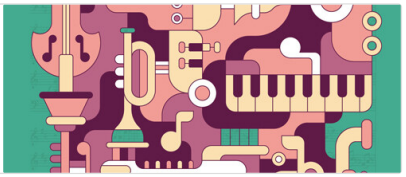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5884814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이 모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비범한 선교 교향곡.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선교로 부름받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 일상에서 우리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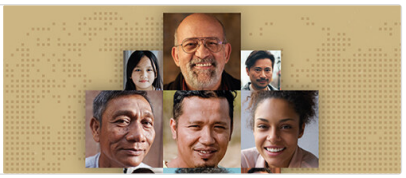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43610424



신약성경의 상황화

신약성경의 렌즈를 통해 진정한 상황화가 무언가를 탐구해보려는 시도가 담겨 있으며, 신약성경의 글들이 상황에 민감한 신학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4994618



선교적 성경 해석학 | 미셔널신학번역총서 1 | 마이클 고힌 엮음, 백지윤 옮김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반영한 이 책은 선교적 성경 해석학을 정의하고, 이를 성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하며, 설교와 신학 공부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26281134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고민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그리고 인도자님의 삶이 그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 교재 구입처

https://www.ala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SearchTarget=All&SearchWord=사단법인+미셔널신학연구소

KYOBO 교보문고

https://search.kyobobook.co.kr/search?keyword=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gbCode=TOT&target=total

yes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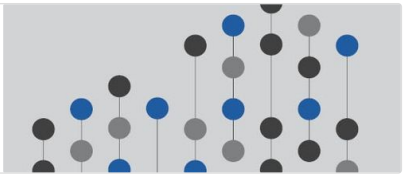
https://www.yes24.com/product/search?domain=ALL&query=%25EC%2582%25AC%25EB%258B%25A8%25EB%25B2%2595%25EC%259D%25B8%2520%25EB%25AF%25B8%

밀리의 서재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 | 밀리의서재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는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필요한 지식, 태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16과로 구성...

https://short.millie.co.kr/lj3×3m



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 | 밀리의서재

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심(요 20:21)을 중심으로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

https://short.millie.co.kr/slf157t

